

2014년도

서울특별시 - 홋카이도

우호교류 추진 캠페인

*서울특별시와 홋카이도는 2010년 10월 우호교류협정서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 왔습니다. 양 지역의 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상호 시설을 우대 이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열어 홋카이도 도립 시설의 우대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2014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쿠폰을 지참한 관광객이 시설 창구에 쿠폰을 제시해 우대 이용

*쿠폰 발행처: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popup/campaign/>)

시설명	우대내용
개척마을	단체요금 적용
오호츠크 유빙과학센터	단체요금적용
근대미술관 상설전시실	무료
미기시 코타로 미술관 소장품전	무료
야사히카와 미술관 제2 전시실(상설전)	무료
하코다테 미술관 상설전시실	무료
오비히로 미술관 상설전시실	무료
북방민족박물관 상설전	무료
문학관 상설전시실	무료

개척마을은 쿠폰을 지참하면 입장권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개척마을



北海道开拓村

홋카이도 개척마을은 옛 건물의 보존과 홋카이도 개척자들의 생활을 전시할 목적으로 1983년 4월 16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척촌은 메이지, 다이쇼의 건물 약 60동을 시가지군, 어촌군, 농촌군, 산촌군으로 나누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건물들은 원형대로 복원되었고 그 내부에는 살림살이를 전시하여 옛 생활을 재현했습니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옛 건물들이 즐비해있는 메인스트리트를 따라 여름에는 마차철도를, 겨울에는 마차썰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척의 역사

홋카이도엔 선주민인 아이누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에 예로부터 거주하던 아이누인은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연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홋카이도 개척사 설립은 1869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개척되었습니다. 당시 서양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척사 공업국 청사

개척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미국인의 지도 하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신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개척사의 업적에 대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타루 신문사

삿פור의 응회암을 사용한 석조구조의 3층 건물입니다. 옛날 인쇄기로 방문한 날 날짜가 찍히는 업서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시마우타 우체국

홋카이도에서 근대 우편 제도가 시작된 것은 메이지 5년(1872)로 시마우타에는 메이지 19년(1886)에 우체국이 설립되었습니다.



타무라 복성관 잠종제조소

메이지시대 비단은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이 집은 누에씨를 생산하여 양잠농가에 출하하는 특수농가, 양잠실과 뽕저장실이 있습니다.



야마모토 이발소

다이쇼 말기부터 1986년까지 삿פור에서 영업했던 이발소입니다. 서양풍의 디자인은 이 시기의 일반주택의 특징이었습니다.



개척마을에서 볼 수 있는 홋카이도유산

홋카이도 내의 유형, 무형 재산 중 홋카이도민의 보물로 정해지는 것이 '홋카이도유산' 입니다. 현재 홋카이도유산에는 총 5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척마을에는 홋카이도유산에 해당하는 개척사 시대의 서양 건축(개척사 니시도오리 서양풍 주택, 개척사 공업국 청사), 홋카이도의 말문화(후지와라 마차 제작소) 등 여러 홋카이도유산을 볼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낙농업



<홋카이도 낙농업의 시초>

홋카이도 낙농업은 메이지 시대 초기에 관영 목장을 설치해 소를 사육하면서 연유와 버터 등의 제조를 시도했던 것이 시초입니다.
 민간에도 축산을 장려했지만 실제로는 도시근교의 우유 판매 업자 등이 젖소를 사육하는 정도로 낙농업은 별로 보급되지 않았었습니다.
 메이지 말기 들어서 한랭지에는 유축농업이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고 낙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농업이 체계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다이쇼 말기부터입니다.
 낙농업의 초창기인 다이쇼12년(1923)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때 구원 물자로 대량의 유제품이 수입되어 홋카이도의 낙농업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당시 젊은 낙농업자였던 구로사와 토리조(黒沢西蔵)는 이 위기에 직면하여 덴마크 농업을 모델로 많은 낙농업자와 함께 '홋카이도제낙(製酪)판매조합'을 설립하고 유제품의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 등 해외 제품에 뒤지지 않는 홋카이도 브랜드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홋카이도 낙농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키지루시(雪印) 역사관
 (홋카이도유산 지정)



현관 로비에는 스위스, 독일 등의 카우벨이
 있어 소리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의 버터를 만드는 기계와 공장을
 1/30사이자로 축소한 모형 등이 전시되어 공장
 전체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우유 생산량은 51%로
 전국 1위입니다.



쇼와30년(1955)대 연속버터 제조기입니다.



쇼와10년(1935)대에 사용한 냉각기와
 농축기입니다.



가츠겐 신사

홋카이도에서만 파는 유산균 음료인 가츠겐의
 이름은 승리의 승'勝'과 원천의 원'源'으로
 이루어져 운이 좋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견학코스에는 필승을 기원하는 수험생과
 스포츠선수를 도와주는 신을 모시는 가츠겐
 신사가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 (1897~1905)의 우유 광고

효고현, 야마구치현,
 군마현 등의
 우유판매점에서 정월
 등에 선전했던 우유
 광고입니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나누어 주는 모습이
 많은데 아이들의
 복장에서 당시 유행했던
 옷 등 당시 풍속을 알 수
 있습니다.



<DAY사업> 경상남도 세미나

2006년 6월 7일 경상남도와 홋카이도는 교류취의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양 지역의 교류 촉진을 위해 작년부터 DAY사업으로
 교류 지역을 소개하는 사진전과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상남도 아름다운 지역들의 사진을 전시하고,
 6월 6일 홋카이도청 1층에서 세미나를 열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